

경남신문 > 경제

“농지 계약도 휴대전화로”

경남농어촌공사, 디지털 서비스 도입

기사입력 : 2026-03-17 08:08:50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부터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등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계약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으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태블릿 디지털 창구도 마련됐다. 현재까지 14만2000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하은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이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